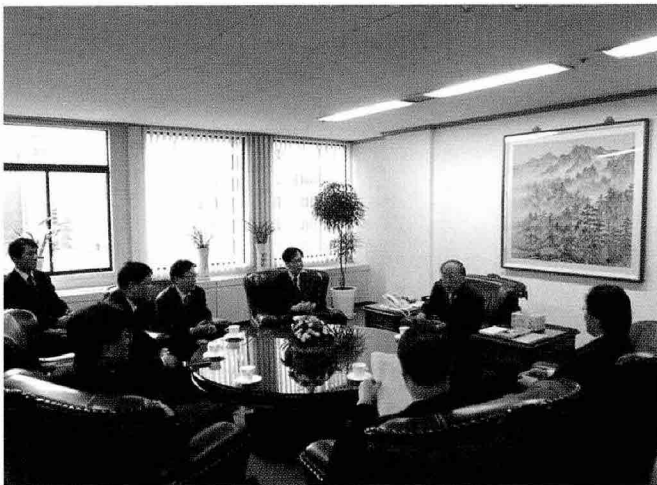


구체적인 자연재해 위험관리 방안 마련과 강풍방호대책 수립 시급 풍수재해활동 설문조사 실시

협회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풍수재해활동 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특수건물의 풍수재해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실시, 사업장의 실무자를 위한 세미나와 간담회 개최, 태풍 내습시 속보 제공, 풍수재해대책 추진결과보고서 발간에 관한 것이며, 손해보험업계 10개사와 특별점검을 실시한 사업장 중 50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설문 결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5년 사이에 태풍이나 호우로 인한 피해를 1~2회 경험한 사업장이 무려 72%나 되고 있어 풍수재해로 인한 사고가 우연히 발생하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로 간주하고 피해경감 대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풍수재해예방점검에 대하여 강풍방호대책(33.7%)과 종합대책(31.2%)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침수방호대책(19.5%), 주변상황에 대한 방호조치(11.7%) 및 구조복구활동(3.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원인을 보면 상습피해지역(51.2%), 예산과 인력부족(22.3%)을 지적하고 있어 사업장의 위치선정시 사전 영향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사후관리에서도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면도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연재해 위험관리 자문위원 위촉

향후 화보협회에서는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참조하여 풍수재해 피해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보다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연세대 조원철 교수, 관동대 김영덕 교수, 전주대 이재수 교수, 충주대 이승수 교수, 방재연구소 심재현 박사, 삼성화재 방재연구소 심규철 박사 등 방재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연재해 위험관리방안 및 자연재해에 관한 손해보험업계의 역할과 실천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평택민자역사 방재설비 설계도면 검토 및 안전진단 계약 체결

협회는 12월 19일, 용도엔지니어링(주)(대표이사 허종구)와 평택민자역사의 방재설비 설계도면 검토 및 화재안전진단에 대한 방재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협회는 컨설팅을 통해 역사건물의 위험특성에 맞게 안전성을 검증하고, 건축방재 및 소방관련 법규 등에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며, 시공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미리 도출하여 공기연장 등 불필요한 추가적인 공사비 유발요인을 억제하고, 아울러 건물완공 후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화재보험 설계방안도 제시한다.

손해보험업계 위험관리업무 실무담당자 간담회 개최

협회는 12월 8일 6층 대회의실에서 손해보험업계 위험관리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업계 위험관리 실무 담당자 16명과 협회 위험조사부 3명 등 20명이 참석한 간담회는, 1부는 FY2005 풍수재해대책활동 등 협회 위험관리업무에 대한 보고와 2부는 손보업계 현안을 토론하는 위험관리 과장회의로 진행되었다. 간담회는 'FY2004 특수건물 안전점검 결과분석', 'FY2004 특수건물 화재조사분석', 'FY2005 풍수재해대책활동 보고' 등 협회의 위험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증진과 더불어, 위험관리 워크숍 개최 건의 등 협회의 위험관리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와 의견이 있었다.

인사발령

〈승격〉

▶ 경영기획부 이사 유길종 ▶ 총무부 이사 이상건 ▶ 특수업무부 이사 홍순만 ▶ 중앙지부 이사 김수광 ▶ 인천지부 부장 김상학 ▶ 연구컨설팅부 부장 김원철(사업개발팀장)

〈이동〉

▶ 인천지부 위험진단팀장 이경환 ▶ 인천지부 위험진단2팀장 이종현 ▶ 광주지부 위험진단팀장 김성수 ▶ 건축구조부 방내화팀장 겸 선임연구원 성시창(이상 12월 1일자)

특수건물 화재, '경기도'와 '공장'에서 최다 발생

『2004 특수건물 화재조사분석』 발간



협회는 매년 무료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특수건물 18,405건 중 2004회계년도(2004. 4. 1~2005. 3. 1)에 화재가 발생한 508건을 분석한 『2004년 특수건물 화재조사분석』자료집을 발간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업종별로는 '공장'에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자는 53명(사망 8명, 부상 45명) 발생하였고, 재산피해는 62억원(소방방재청 자료)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화재발생률은 0.32%P, 인명피해는 15명이 증가하였으나, 재산피해는 약 78억원이 감소한 수치이다.

협회는 이 자료를 소방정책 및 화재보험 언더라이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국내 손해보험사에 배포하였다.